

**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C&T**  
COLOR & TOUCH

**HANSAE MK**

**HANSAE DREAMS**

**YES24.COM**

**동아출판**

**YES24 LIVE HALL**

**YNK MEDIA**

**STYLE<sup>24</sup>**

HANSAE QUARTERLY  
MAGAZINE

ISSN 2636-0551

# HANSAE

SPRING  
IN

VOL. 028

HANSAE IN

VOL. 028



#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28 SPRING

## COVER STORY



길고 길었던 겨울을 녹이는 봄이 오면 펜스레 마음이 설렌다. 내리는 햇살만 보아도 포근한 게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 봄을 즐길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에, 우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의 여유를 즐기려 바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발행일:** 2022년 03월 일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대외협력팀  
**인쇄:** 동아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한세에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 SPRING THEME SPRING HAS COME

<b>신년 정보기 문화</b> <우리는 왜 연말연초가 되면 불안할까, 신년 정보기 문화>	08
<b>임인년 특집 인터뷰</b> 호랑이띠 인터뷰	10
<b>동아출판 광고</b> 광고	12
<b>신입사원 인터뷰</b> 신입사원 인터뷰	14
<b>PGA TOUR_LPGA</b> 입고, 경험하고,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한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더 그레이트 스타트 하우스' 인기	18
<b>한세에스24 문화재단 동남아총서 발간소개</b> 한세에스24문화재단, 국내 최초 동남아시아 문학 전집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출간	20
<b>한세에스24 문화재단 조영수 이사장 인터뷰</b> 동남아 손길 없었다면, 지금의 한세도 없었죠	22
<b>유튜브 광고론칭</b> EBS 대표 영어 강사 주혜연 집필 동아출판 '공통문' X 고려대 유튜브버 '미미미우' 동아출판 '빠작' X 유튜브 채널 '만플리' MZ세대 겨냥 이색 콜라보 <빠작 플레이리스트>	24
<b>별별업무탐방 인터뷰</b> 에스24 더뮤지컬팀 배경희 파트장 사보 인터뷰	26
<b>한세일보</b> 한세 봄호 계열사 소식	30

<b>한세드림</b> 보도자료 및 SNS 채널리스트	34
<b>베트남 법안장 인터뷰</b> LIFE AT GLOBAL HANSE	36
<b>최고은 큐레이터</b> 2022년 NFT 아트의 미래는?	38
<b>신병재의 광고이야기</b> 2020, 대중의 새 마음에 불을 지필 방법	40
<b>NBA</b> NBA, 80년대 오리지널 농구화 재해석한 'NBA스타디움' 출시 슈즈 라인 확대 본격화	42
<b>NBA Kids</b> NBA Kids	44
<b>동아출판</b> 동아출판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48
<b>동아출판 광고</b> 광고	54
<b>전찬일 호랑이띠 배우이야기</b> 유아인, 문소리, 최민식... 안주하지 않는 호랑이띠 배우들	56
<b>책읽이웃</b> '처음'이라는 단어에 꼭 어울리는 책	58
<b>문화다방</b> 문화다방	60
<b>대동맛지도</b> 점심뭉치기_ 서여의도편	64
<b>조찬강연 1-3월 소개</b> 전사 조찬강연회를 소개합니다!	66

## Spring Has Come



만약 당신이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고도 영혼의 설레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아직 피어나지 못한 것이다.

Audra Foveo

If you've never been thrilled to the very edges of your soul by a flower in spring bloom, maybe your soul has never been in bloom.

계절의 변화를 보고 있다면 대자연의 한낱 인간으로 태어났음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하고 느끼게 된다. 자연의 작은 존재임이 불만이거나, 자신이 더 드러나야 한다는 욕심 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니 말이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손님, 이 아름다운 봄의 하모니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BUCKAROO

한세엠케이 버커루, 2022 S/S 광고 모델로  
‘뉴라이징 스타’ 최연수, 이기택 전격 발탁!

- 버커루, 2022년 S/S 시즌 새로운 광고 모델로 패션모델 최연수, 배우 이기택 선정
- ‘돈 라이 라희’로 연기력 입증한 최연수, 시크하면서 청순미 넘치는 반전 매력으로 남성 공략
- KBS2 인기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의 이기택, 찌기만 해도 화보 되는 아우라에 주목
- 데님계 ESG 선두 브랜드 버커루, 두 모델과 파격적이고 트렌디한 빈티지 스타일링 전개 예정

넷플릭스 ‘솔로지옥’ 출연자 차현승, SBS ‘펜트하우스’ 최예빈 등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킨 패션 브랜드 버커루는 이번 2022년 S/S 시즌을 책임질 새로운 얼굴이 공개됐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프리미엄 빈티지 브랜드 버커루(BUCKAROO)는 2022년 상반기 S/S 시즌 광고 모델로 패션모델 최연수와 배우 이기택을 전격 발탁했다고 4일 밝혔다.

다방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최연수와 이기택은 올해 봄, 여름 시즌을 버커루와 함께하며,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연수는 패션 및 뷰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패션모델이다. 지난 2018년 Mnet ‘프로듀스 48’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티빙 드라마 ‘어른연습생’과 유튜브 채널 콜TV에서 방영하는 웹드라마 ‘돈 라이 라희’에 고민영 역할로 출연해 배우로도 활약 중이다.

배우 겸 모델인 이기택은 여심을 사로잡는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바디 라인의 조합으로 수많은 여성 팬층을 거느리고 있다. 웹드라마 ‘인서울 시즌2’로 성공적인 연기 신고식을 치른 그는 tvN ‘악마판사’와 현재 방영 중인 KBS2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를 통해 배우 스펙트럼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번 2022 S/S 화보에서 두 모델은 유니크한 포즈로 버커루만의 빈티지 감성을 더욱 파격적이고 옛지 있는 무드로 재해석해 표현했다. 최연수는 내추럴한 청순 미모와 데님이 잘 어울리는 이기적인 각선미로, 이기택은 뚜렷한 이목구비 비주얼과 멀리서도 느껴지는 모델 포스로 각각 화보 장인의 면모를 과시했다.

차가운 블루톤 배경에서 진행된 이번 화보 촬영에서 이들은 능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움직임으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리드하며, 버커루의 새로운 유즈로서 최강 호흡을 자랑했다는 후문이다.

버커루 관계자는 “패션모델로서 전문성을 지닌 두 배우의 당연한 에티튜드가 프리미엄 빈티지 감성의 버커루와 잘 어우러져 새로운 시너지를 발생시켰다”며, “라이징 스타 등용문으로 불러 주시는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색다른 마케팅으로 버커루의 2022년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버커루는 리사이클링 패딩 충전재, 에코퍼 등으로 데님계 ESG 경영 선두 브랜드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 버커루의 오랜 장인정신을 담은 ‘아틀리에(Atelier)’ 테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장을 오픈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매장 디스플레이에 기존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우드와 철판을 적극 활용하고,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트렌디한 매장 분위기를 완성했다.



# BUCKAROO





“SNS를 뜨겁게 달군 새해 핫 패션!”

## 버커루 모델 최예빈&손현우 윈터룩 패션, SNS에서 화제

- 최예빈&손현우, 개인 인스타그램에 버커루 윈터룩 업로드, 팬들 관심 뜨거워
- '2021 SBS 연기대상' 신인상 수상 최예빈, 장난끼 넘치는 미소로 에어플렉스 다운 점퍼 완벽 소화
- 'ATO6' 손현우, 점퍼와 데님 조합으로 설레는 남친룩 완성.. 남성 소비자들 제품 문의도 UP
- 버커루, 2022년도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 위해 마케팅 다각화 예정



버커루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광고 모델 최예빈과 손현우의 엽지 있는 패션 센스에 힘입어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프리미엄 빈티지 브랜드 버커루 (BUCKAROO)는 최예빈과 손현우의 개인 SNS에 업로드된 윈터룩 패션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버커루 겨울 아이템을 베이스로 한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코디로 브랜드 특유의 고급스러운 헤리티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예빈은 장난끼 넘치는 미소와 함께 사랑스러운 원마 일웨어룩을 완성했다. 루즈핏의 트렌디한 소재가 돋보이는 '여성 PU 숏키장 RDS 다운점퍼'로 꾸안꾸 매력을 뽐내며, 모던한 디자인의 '면벨루아 팬츠'를 매치해 심플한 외출룩을 완성했다. 특히 점퍼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RDS 인증 충전재를 사용해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가치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손현우는 '남성 N/P 후드 RDS 숏다운점퍼'로 설레임을 유발하는 남친룩을 선보였다.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와 목 부분의 양털 소재로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한다. 하의로는 빈티지 워싱 기법만의 세련미가 강조된 '남성 히팅진 레귤러 스트레이트 M톤 기모 팬츠'를 함께 코디해 모델 출신다운 포스

로 MZ세대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 취향을 저격했다. 팬들은 게시글에 '세상에서 제일 이빠요', '레전드 미모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윈터룩에 대한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두 사람은 패션니스타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배우 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종영한 '펜트하우스 시즌 3'으로 2021 S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최예빈은 KBS2 토일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 출연이 확정됐다. 손현우도 아이돌 그룹 ATO6과 웹드라마 '트랩' 출연을 병행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버커루 관계자는 "최예빈과 손현우의 트렌디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버커루의 빈티지 감성과 잘 어우러지면서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도 많이 늘었다"며, "2022년에는 소비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멤버십 프로모션과 다양한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버커루는 보다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매장 매뉴얼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으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리사이클링 패딩 충전재, 에코퍼 등이 적용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우리는 왜 연말연초가 되면 불안할까, 신년 점보기 문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점술 시장은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초가 되면, 헬스장만큼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바로 사주집 혹은 점집이라고 하는데요. 해가 바뀌면 점을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대학 입시철만 되면 엇과 떡이 많이 팔리는 현상, 돌부처의 코를 만지며 기도하면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설 때문인지 부처의 코만 유독 뜯긴 현상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인간은 은연 중 외부적 요인에 기대려는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사람들은 심리학적 통제 소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제하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내적 통제감을 갖는 사람과 내 삶을 통제하는 힘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외적 통제감을 갖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죠. 점이나 운세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내 삶을 통제하는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내 삶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불안할 것이고, 그 요소를 미리 알아내고 예측해 대처하려는 마음이 점이나 운세를 보는 행위로 치환된다고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통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를 비롯한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에는 의지할 만한 다른 요인들을 찾는 거죠. 즉 점술이나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찾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너무 외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내가 가진 집이 남의 집보다 얼마나 큰가,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내 친구는 어떤 차를 타는 가 등등이죠.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친구 혹은 이웃들과 어울리는지, 내가 남을 얼마나 존중하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지 등 변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나 인성 등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세나 점을 볼 때에도 재물운·학업운·직장운 등 외적인 요소에 치우친 카테고리이징을 확인할 수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해가 바뀌면 신년 운세를 많이들 보러 간다 합니다.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져가고, 코로나19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대가 그런 걸까요. 점이나 운세를 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마냥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점괘로 나온 결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 내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바넘효과'라고 합니다. 피티 바넘이라는 서커스 창시자는 '이 세상에는 계속 속을 사람들이 태어난다(There's a sucker born every minute)'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효과를 버트럼 포러라는 심리학자가 1945년 실험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점괘를 나누어주고 당신의 점괘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그 점괘를 받은 사람 80%가 자신의 이야기와 꼭 맞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점괘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니 누구에게나 해

당될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금방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 봐라'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 점괘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야기라며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죠. 점이나 운세를 보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내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애매한 대답이나 풀이를 자신의 처지와 일치시켜 받아들이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점괘가 좋게 나오면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잘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보다는, '올해의 운이 좋았구나'라고 겸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점괘가 나쁘게 나오면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올해는 운이 안 좋다고 했어'라며 흠뻑 털며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정도로만 이용해야지, 어떠한 행동이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애초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애초의 내 노력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들인 공이나 노력에 비해 결과가 꼭 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그 여파를 정리할 틈도 없이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큰 기대나 희망에 부푼 우리의 모습을 찾기 힘든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흑호랑이의 해입니다.

사실, 흑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동물입니다. 필자도 호랑이해에 태어나서인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 호랑이'의 용맹하고 밀착한 기를, 특별히 올해는 받아볼 수 있을까 기대하는 중인데요. 여러 세대를 걸친 한세의 호랑이띠들도 같은 기분일 거라 짐작해 봅니다. 2022년 '한세인' 첫 시작을 위해, 특별히 동갑내기 30대 호랑이띠 4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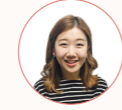
## Q1\_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세드림 모이몰론 최혜선** 22년 임인년은 호랑이띠인 저한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마침 22년에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이몰론 슬립웨어가 미국(아마존)에도 첫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런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아출판 창의2실 박수미** 코로나로 인해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해서 연도가 바뀐다는 걸 크게 인식할 일이 없었는데요. 사보 인터뷰라는 이벤트로 2022년이 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올 한 해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아 설레네요.



## Q2\_지난 2년은 코로나를 비롯, 다사다난한 일들로 참 속 시끄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여러분의 계획을 이야기해 본다면요? 소소한 것들이라도 좋아요.

**에스24 뉴미디어팀 김상훈** 저는 올해 들어 여러 가지 '리추얼'들을 만들어서 실천해 보고 있어요. 리추얼은 일상의 작은 습관을 만들고 마치 의식처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근 전에는 5줄 일기를 쓰고, 퇴근 후에는 1시간 운동을 하고, 또 1시간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지인들과 낭독 모임과 창작 모임을 갖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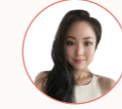


**한세에스24홀딩스 홍혜실** 그래도 호랑이띠라 그런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고 의지가 된다고 할까요? 예년보다 걱정이 된다는 불안한 마음 등..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많이 사라져서..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소소한 재테크와 양질의 육아.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2022년 저의 목표입니다.



## Q3\_30대 호랑이들, 요즘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한세엠케이 TBJ 우지희** 요즘 30대들은 "N잡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주로 취미나 여가 생활에 관련된 일을 인플루언서, 블로거, 유튜버 등으로 표출해 내어 다양한 영역으로의 활동을 추구합니다.



**한세에스24홀딩스 홍혜실** 아무래도 저는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 육아와 양육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각종 육아서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 정보도 주워들고 있기는 한데...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어보니, 결국 육아란 엄마아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설립하고 그것대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휘둘리면 아이 역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주변 정보를 선택해서 취하고 저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 Q4\_호랑이띠라고 하면 주변에서 흔히들 '기가 썰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ㅎㅎ '나는 정말 기가 센 사람'인가요?

**에스24 뉴미디어팀 김상훈** 얼마 전에 사주를 봤는데 띠랑 상관없이, 태어난 월 일시에 따르면 저는 '쇼'에 가깝대요.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 온순한 편이에요. 겉으로 기를 내뽐는 스타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고집은 은근히 강한 편인데 이것도 기가 센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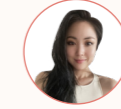


**동아출판 창의2실 박수미** 저도 호랑이띠라고 하면 가끔 듣는 말인데요 ㅎㅎ 일반적으로 기가 세다고 말하는 센 언니 스타일은 아닌데... 흔히 말하는 고집은 좀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귀가 얇거나 주변에 잘 휘둘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고 포장하고 싶네요 ㅎㅎ



## Q5\_'호담국'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호랑이에 대한 다양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합귀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동물로, 주로 긍정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동물입니다. 내가 호랑이(?) 생활이나 업무에 도움되는 점, 혹은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한세엠케이 TBJ 우지희** 업무적인 면에서 호랑이처럼 민첩하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면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대범한 기질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세드림 모이몰론 최혜선** 제가 호랑이라서 도움되는 점이나 불편한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굳이 뽑자면.. 얼마 전에 단골 미용실에서 새해맞이 호랑이띠 할인 이벤트 문자가 왔더라고요 ㅎㅎ 30%나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조만간 호랑이의 혜택을 누리러 미용실에 가봐야겠습니다^^



## Q6\_마지막으로, 호랑이띠를 비롯 전체 '한세인'들을 향한 올해의 응원 메시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에스24 뉴미디어팀 김상훈**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위험이 커진 코로나 시국에 모두들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상을 단단히 다지면서 건디다 보면 분명 안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웃으며 대면하는 날을 기대하며 올 한 해 힘내세요!



**한세에스24홀딩스 홍혜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세인들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정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세인들에게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에게 성취도 생기고, 공부 습관도 만들어 주는 동아출판 <초능력>, <빠작> 학습단

느슨해지기 쉬운 4월  
우리 아이 기초 점검해 보셨나요?  
초능력 학습단으로 함께 시작해요!

# 초능력 학습단 모-집



동아출판은 가정에서 초등 자녀와 학부모들이 함께 공부하며 공부 습관도 만들고,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학습단을 진행한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네이버 카페 동아맘에서 초등 기초 학습을 잡아줄 수 있는 초능력 학습단을 운영한다. 해당 교재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제한 완주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초등 국어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빠작 초등 국어 독해 프로젝트는 네이버 카페 도치맘에서 진행되며, 8주간 완복을 목표로 매주 학습일지 작성 시 어휘 테스트지 제공, 활용팁 등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이 많아진 초등학생과 엄마들을 응원하는 취지로 학습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신입사원 인터뷰

32기 신입사원 5인과 함께 '한세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의 한세 적응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소속부서 말씀해주세요~

**곽성연**  
생산혁신본부 해외지원팀입니다.

**박범열**  
정우 6층의 꽃, 콜스 1C32팀입니다.

**이승재**  
생산혁신본부 물류팀입니다.

**추은미**  
안녕하세요, 수출5A본부 7부 3팀에 배치된 신입사원 추은미입니다.

**홍지원**  
저는 수출3A본부 1부 2팀 인턴 홍지원입니다.  
타겟 바이어의 Cat & Jack 브랜드 NB baby 옷과 BG Legging을 담당하는 팀이에요!

어느덧 입사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곽성연**  
사실 3개월 차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1주일, 1달이 순식간에 흘러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모습과 비교해서는 할 줄 아는 것도 생겨 좋고,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박범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직무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고, 쉬는 날에는 옷을 좋아하는 동기들끼리 모여 쇼핑하며 Refresh 하였습니다.

**이승재**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수월해질 줄 알았는데 31살이 된 지금, 여전히 막막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인생이겠지요.

**추은미**  
동기들과 함께 교육받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군요! (웃음) 저는 기대가 컸던 만큼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팀원 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에 열심히 따라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원**  
대학생 때부터 꿈꿔오던 한세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받게 되어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실 저는 상반기 공채 때 최종에서 불합격했다가 이번 하반기 공채를 통해 드디어 입사했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의류 전공자로서 현재 배우고 있는 디테일러 직무가 너무 재미있고, 같은 팀 선배님들께서도 따뜻하게 잘 챙겨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일을 해보니 기대하던 신입사원의 모습과 자신의 현재 모습이 비슷하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곽성연**  
뚝 부러지게 한 번에 알아듣고 착착 일을 정리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만, 제 모습은 아직까지 살짝 어리바리한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푹푹한 막내 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박범열**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려는 열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1등 인턴이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소통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1등 사수 밑에서 배우고 있기에 제가 기대하던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승재**  
멋있게 일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모습과 정반대로 다시 군대 이등병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등병 생활을 군대에서 해봤지만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상당히 낯선 느낌입니다

**추은미**  
실제 일을 해보니 옷을 제작하는 데에는 여러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울음) 패킹 방법과 텍은 어느 위치에 부착할 지, 워싱 방법, 테스트 등등. 꼼꼼함을 자부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확인요청이 올 때면 "놓친 것이 있구나"란 생각과 함께 위축될 때도 있어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얼른 질문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남은 인턴 기간 동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원**  
저는 지금까지 일머리가 좋다는 말을 제법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사해서도 무슨 일든 다 척척 잘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매일같이 뼈저리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얼른 모든 업무에 적응해서 저희 팀과 한세에 꼭 필요한 직원이 되고 싶어요.

입사하면서 생각했던 입사후 포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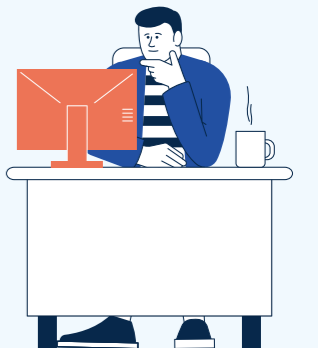
**곽성연**  
한세에 입사하게 되며,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숙달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진 코로나 등의 이유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주말 대면 강의를 등록하려 합니다!

**박범열**  
아직은 입사 당시 생각한 제 목표보다 업무에 능숙해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제 일에 익숙해진다면, 3d design을 공부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싶습니다.

**이승재**  
업무적으로 딱히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모으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솔 값에 탄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ㅠㅠ

**추은미**  
사실 바이어의 니즈를 제대로 캐치해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C+, M/A, SB 등 줄임말도 많아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5명 중에 2명의 담당자와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였으니 목표에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원**  
부끄럽지만 저의 입사 포부는 공채로 입사해서 상무, 이사 직책까지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그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깜깜 멀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채로 입사했으니 절반은 성공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언젠가는 그 목표 달성할 거예요!





**입사후 가장 많이 바뀐 점은?**



**곽성연**

아무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인 것 같네요~ 이전에는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6시면 눈이 떠진답니다!



**박범열**

카톡할 때, 자꾸 쓸데없이 영어를 섞어 쓰는 habit이 생겼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hansae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재**

음주 횟수와 주량이 늘었습니다. 원래 2병 정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데 입사 후에는 아무리 마셔도 필름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진 않아 보이므로 정신력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은미**

항상 하루에 정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갑작스러운 요청도 수행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적응해야 할 일이 많아 매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지원**

저는 한세에 입사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밤에 한강공원 산책하면서 야경을 봤는데, 상경해서 괜히 성공한 기분도 들고 뿌듯했어요. 자취도 타향 생활도 모든 게 다 처음이라 조금 외롭긴 하지만, 꿈꾸던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입사후 가장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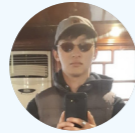
**곽성연**

하루하루가 모두 재미있고 기억에 남아 하나를 꼽기가 힘드네요.



**박범열**

팀에서 연말에 마니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항상 잘 챙겨줘서 마니또가 누구인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소팀장님이 "우리 팀은 모두 항상 범열의 마니또야." 라고 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으며 '내가 팀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재**

동기들이 양꼬치 집에서 성대하게 저의 생일 파티를 열어 준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굉장하 헝기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역시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만취했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은미**

가먼트 테스트 결과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웃기면서도 아직 까지도 민망하네요. 테스트 기관 담당자가 그래픽에 fuzzy hair 언급했는데, 저는 fuzzy, 곱슬의 란 뜻만 알아 팀원분들께 위생 테스트도 하는지 물었어요.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여쭙었는데 다들 웃으면서 제 덕에 웃는다고...



**홍지원**

입사 2달 차에 친한 여자 동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다들 3kg 정도씩 살핀 걸 알게 됐어요. 나만 찐 게 아니구나 모한 안도감이 들면서도,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지게 된 우리가 비슷하게 증량한 게 너무 웃겼어요. 다들 새해에 열심히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잠잠한 걸 보면 다들 실패한 것 같아요ㅎㅎ

**본인의 MBTI는?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는?**



**곽성연**

ESFP,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박범열**

ESFJ 에어팟, 한 번 접하면 없이 못 살아서 ㅎㅎ



**이승재**

ESTP,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광대입니다! 남을 웃게 하고 재밌게 해줄 때 희열을 느낍니다.



**추은미**

ESTJ, 엄격한 관리자!! 계획하고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실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한 것은 없어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꺼운 hansae 2022 다이어리에 쓰고 있습니다. 안 잃어버리고 좋아요.



**홍지원**

저는 ISTP 예요. MBTI에서는 "만능재주꾼" 이라고 하는데, 얼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이것저것 취미가 많은데 워든 중간 이상은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탁월하게 잘하진 않고 애매한 수준에 그친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인 거 같아요ㅠㅠ

**올해의 목표!**



**곽성연**

1인분을 하자. 혼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멘탈 붙잡고 곳곳이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열**

팀 내에서 1인분하기



**이승재**

건강하자! 동기들과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자!



**추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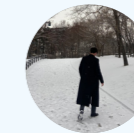
우선 팀에 적응해서 맡은 일들을 문제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기에 지금은 큰 꿈보다는 이런 생각 밖에 들지 않네요.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홍지원**

제 올해 목표는 "갓생 살기" 예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만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사실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휘핑크림 잔뜩 올라간 커피 대신 요거트 먹기, 일일 휴대폰 사용 시간 줄이기처럼 작고 사소한 루틴에 불과해요. 그래도 은근히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워서 애먹는 중인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씩 고쳐 나가려 해요.

**선배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곽성연**

아직 실력보다 열정이 앞서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턴입니다. 하지만 '나비도 날기 전에는 기었다' 라는 저의 좌우명을 토대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열**

한세실업 다닌다고 주위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로 먼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재**

예쁘게 봐주세요~~



**추은미**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되기에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챙겨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메모 잘하면서 배우겠습니다!!



**홍지원**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사수 선임님.. 제가 가끔 실수도 하고 맨날 뭐 물어보느라 귀찮으실 텐데도 화 한번 안 내시고 항상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임님이 제 사수라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더 열심히 배울게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터뷰에서도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각각의 개성이 돋보이는 답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고, 경험하고,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한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더 그레이트 스타트 하우스’ 인기

-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더 그레이트 스타트 하우스’, 골퍼들 사이 인기 급상승
- LPGA 프로페셔널스 자격 지닌 골퍼 레슨부터 최첨단 장비 통한 체험까지.. 차별화 UP!
- 쇼핑 이상의 가치 선사할 수 있도록 색다른 오감체험 가능한 매장으로 지속 선보일 예정



## PGA TOUR & LPGA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의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지난해 10월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더 그레이트 스타트 하우스(The Great start House)’가 MZ세대 골퍼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더 그레이트 스타트 하우스’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PGA TOUR & LPGA 골프웨어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프랑스 파리 에콜 카몽도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한 중킴이 전체 디자인을 맡아 전통의 멋과 모던한 감각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전체적인 무드는 고급스러운 화이트 앤 골드 톤으로 꾸며져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최근에는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운영 중인 ‘슈스스TV’에 소개돼 포토 핫스팟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LPGA 프로페셔널스’ 자격을 지닌 프로 골퍼들의 레슨이 운영 중이다. ‘LPGA 프로페셔널스’는 여러 선수들과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티칭프로들에게 티칭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 티칭프로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주말과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해당 레슨을 실시하고 있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매장에는 골프 스윙 분석기 ‘트랙맨(TRACK MAN)’과 AR 기술로 퍼팅의 원리를 익히게 도와주는 ‘풋뷰(PUTTVIEW)’ 등의 최첨단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도심 한가운데서도 현장 필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적 무드의 설치물들로 차별점을 더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젊은 층의 골프 감성과 잘 매치된 것 같다”며, “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쇼핑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엠케이의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LPGA부터 PGA TOUR까지 섭렵한 최초의 회사다. 최근 2022년 후원 선수 라인업을 공개하며 가장 미국스러운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에 고기능성을 더한 퍼포먼스 골프웨어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세에스24문화재단, 국내 최초 동남아시아 문학 전집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출간

- 동남아시아 근현대문학 출판 사업 2년 만에 시리즈 3종 동시 출간...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소설 선보여  
- 조영수 이사장, "韓·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기획, 동남아문학 지속 번역출간할 것"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 3종  
사진제공: 한세에스24문화재단

한세에스24문화재단(이사장 조영수)이 동남아시아 근현대문학만을 묶은 국내 최초 동남아시아문학 전집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 3종을 동시 출간했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근현대문학 출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첫 출간작이다.

동남아시아문학총서는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호평받은 근현대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한 도서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3종은 베트남 소설 《영주》(2015), 인도네시아 소설 《판데르베익호의 침몰》(1939), 태국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1929)으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진정성 있게 담아냈으며, 아시아인이거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가 더해져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베트남 국민 작가 도빅투이(Đỗ Bích Thủy)의 《영주》는 드엥트엥 지방의 영주(領主) '송쭈어다'에 대한 전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베트남 산악지대 소수민족인 몬족의 문화와 관습, 역사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추천사를 쓴 백민석 작가는 "이 책은 독자를 근대 이전 세계로 데려간다"며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세계로 훌쩍 배낭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칭찬했다.

《판데르베익호의 침몰》은 인도네시아 국가 영웅 반열에 오른 작가 함카(Hamka)의 대표작으로, 젊은 연인의 삶을 통해 미낭카바우 지역의 부조리한 전통과 관례를 고발하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유주 작가는 추천사에서 "부조리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습을 바꾸려 분투하는 인물들에 공감이 되고, 그 시절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풍습과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현대적 서양 문화를 경험한 왕족 작가 아깟담공 라피파트(Akaddamgeng Rapipat)이 집필한 태국 현대 소설의 시초가 되는 작품으로, 당시 태국 지식인 청년이 희망하던 변화된 고국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김태용 숭실대 문예창작전공 교수는 "저자는 서구 상류층과 하층민의 삶, 세속적인 풍경을 정밀하고 과감하게 그리면서 소설의 무대를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낸다"며 "태국 문학과 문화의 영역을 확장해 준 작품이다"라고 추천했다.

조영수 한세에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넘어 문화적 교류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근현대문학 출판 사업을 추진했으며, 2년 만에 시리즈 도서 3종을 동시 출간하게 됐다"며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정서적 교감이 확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문학 작품을 지속적으로 번역, 출간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에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대학생 해외 봉사단, 국제 문화 교류전, 유학생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동남아 손길 없었다면, 지금의 한세도 없었죠



사진제공: 에스24

최근 한세에스24문화재단 조영수(76) 이사장이 동남아 근현대 문학을 묶어 동남아시아문학 총서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베트남 소설 《영주》(2015), 인도네시아 소설 《판데르베익 호의 침몰》(1939), 태국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1929). 이렇게 총 3권이다.

“ 기획부터 출간까지 꼬박 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작품을 선정할지, 저작권 계약, 번역자 선정 등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간 한국에 동남아시아 문학을 들여온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작품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을 수소문했고, 또한 저작권 계약을 위해 에이전시를 구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담백하게 번역해 줄 분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은 오래 전에 했으나 출간까지 꼬박 3년이나 걸렸네요. ”

### Q. 수많은 나라들 중 왜 특별히 동남아 문학인가요?

한세에스24재단을 설립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도, 한세실업이 동남아에 진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창업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세도 없었을 겁니다. 한세실업의 생산법인들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이 항상 있었어요.(웃음) 빚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받았던 도움을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길 원했는데, 문학 작품을 번역해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나라인데, 각자의 문화를 문학을 통해 이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 Q. 그렇다면, 이번에 발간된 총서 3권을 선별한 기준은요?

《영주》, 《판데르베익호의 침몰》,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 세 작품 모두 “전통과 현대의 갈등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공통의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두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현대 문학작품을 선별하고, 각국의 특성과 국민성을 잘 녹여내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예이라고 생각합니다

### Q. 각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국민 작가 도빅투이(Đỗ Bích Thủy)의 《영주》는 드엥트엥 지방의 영주(領主) '송쭈어다'에 대한 전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베트남 산악지대 소수민족인 문족의 문화와 관습, 역사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미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민족과 문화 속으로 훌쩍 시간여행을 다녀온 느낌을 주죠.

《판데르베익호의 침몰》은 인도네시아 국가 영웅 반열에 오른 작가 함카(Hamka)의 대표작으로, 젊은 연인의 삶을 통해 미남카바우 지역의 부조리한 전통과 관례를 고발하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습을 바꾸려 분투하는 인물들이 인상적이며,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풍습과 풍경을 엿볼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현대적 서양 문화를 경험한 왕족 작가 아갓담공 라피팻(Akaddamgeng Rapipat)이 집필한 태국 현대 소설의 시초가 되는 작품으로, 당시 태국 지식인 청년이 희망하던 변화된 고국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상류층과 하층민의 삶, 세속적인 풍경을 정밀하고 과감하게 그리면서 태국 문화의 영역과 이해도를 확장시켜준 작품입니다.

### Q.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요?

그중에서도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이라는 작품에 애정이 많이 가요. 책의 저자는 태국 왕족 출신이지만, 유학생이자 신문기자가 되어 세계 각국을 거치며 기록한 이야기들로 문화의 영역을 스스로 개척시켜 나갑니다. 주인공의 진취적인 모습이 참 흥미로웠고, 20세기의 예술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흡인력 있다고 생각해요.

### Q. 이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재단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재단을 통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아시아 국가 유망작가의 미술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미술전,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학술연구 지원,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이 열흘간 문화교류를 하는 해외봉사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봉사단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최근 2년간은 코로나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했다)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베트남에서 선발된 봉사단원들이 열흘간 베트남 현지 장애인 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하며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봉사단이 직접 참여해 꾸려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책 번역 사업이 간접적인 교류방법이라면 파견 봉사활동은 보다 직접적인 교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K-pop 공연, 태권도, 부채춤도 보여주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 Q.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 출판계 판매 순위 1~3위 가 전부 한국의 작품입니다.

네, '82년생 김지영', '엄마를 부탁해', '종의 기원'이 1~3순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아 기쁩니다.

###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번 동남아시아 문학 번역사업을 시작하며 사업 이름에 '총서'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총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남아 10개국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굴해내고 번역하는 것이 재단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넘어 문화적 교류를 공고히 다지다 보면 정서적 교감도 점점 확대되겠죠? 앞으로도 어떤 작품들이 선택되고, 또 어떻게 번역되는지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답니다.(웃음)

## EBS 대표 영어 강사 주혜연 집필 동아출판 '공통문' X 고려대 유튜버 '미미미누'



EBS와 이투스 영어 대표 주혜연 강사가 집필해 화제를 모은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유튜버 '미미미누'와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하고 유튜브 브랜드 영상을 게재했다.

10대 학생들에게 천사표 영어 선생님이 알려준 주혜연 강사가 등장한 트위치 생방송에 늦은 시간에도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주혜연 강사는 (삽입) 톡톡 튀는 화법으로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 생방송 강의를 진행하여 스타 강사의 면모를 뽐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영어 고민에 대한 상담을 끝으로 생방송이 종료되었으며 편집본 영상은 <미미미누>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로드 후에 약 20만 회를 돌파하며 학생들에게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동아출판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유튜버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 동아출판 '빠작' X 유튜브 채널 '민플리' MZ세대 겨냥 이색 콜라보 <빠작 플레이리스트>



동아출판 국어 전문 교재 <빠작>이 플레이리스트 유튜버 '민플리'와 콜라보를 진행했다. 유튜브로 음악을 즐겨 듣는 MZ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해 '국어 공부할 때/집중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을 선보였다. 영상 제목은 '선곡은 내가 할게, 우린 딱 2시간만 집중하는 거야'로, Jazz & LoFi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했다. 업로드 2주 만에 조회 수 12만 회를 돌파했으며 10대들에게 <빠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았다.

영상 내 댓글 창에서는 국어 공부와 관련된 고민 또는 국어 공부 팁을 댓글로 남기며 10대들의 활발한 소통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동아출판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 예스24 더뮤지컬팀 배경희 파트장 사보 인터뷰



# Bae Gyeong- hui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더뮤지컬에서 수습기자로 일을 시작하여, 14년 넘게 수습, 기자를 거쳐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배경희입니다.

학창시절 잡지기자가 꿈이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중간중간 힘든 일, 고비도 많았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 Q2.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더뮤지컬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보니, 더뮤지컬을 발행하는 업무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잡지 발행만 총괄해오다, 예스24에 와서는 유튜브, SNS, 웹사이트 등 더뮤지컬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Q3. 뮤지컬 많이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관람을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예술의전당에서 하우스 안내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미로 즐겨왔습니다.

### Q4. 더뮤지컬은 발행부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요?

#### 간단하게 더뮤지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더뮤지컬은 자의이던 타의이던 업계에서 유일한 뮤지컬 전문지입니다. 업계가 크지 않기도 하고 잡지 발행이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2000년 창간해서, 20년 동안 발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잡지 판매만으로 수익이 회수되기 어렵고, 1년 이상 버티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랜 기간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발행인의 의지가 컸습니다. 공연전문 제작, 유통회사인 클럽서비스의 대표가 발행을 해왔는데, 잡지만으로 수익은 안났지만, 발행 의지는 컸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휴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스24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였고, 발행인이 잡지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발행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후반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20, 30대 온전히 함께한 매체이다 보니, 다시 성공적으로 재발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Q5. 재창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어요?

예스24에 합류하게 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재발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자들은 예스24에 합류하면서 회사가 커졌다고 생각할 테고, 더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잡지를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기대할 것 같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부터 디자인, 종이 재질 등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Q6. 재창간하는 소감과 의미는 어떠세요?

잡지 기자로 일을 하다 보니 관성적으로 잡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마감에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데, 한 주 기획하고, 그 다음엔 취재, 마감 등 패턴으로 빠르게 지나갔는데, 휴간 동안 잡지 안 만들다 보니 이런저런 새로운 아이템 등이 많이 떠올랐다. 국내에 하나 밖에 없는 뮤지컬 잡지가 다뤄야 할 게 무엇일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Q7. 앞으로 더뮤지컬은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요?

뮤지컬이 한국에서 태어난 장르가 아니다 보니, 해외 작품을 소개하고, 선보이는 기사가 아무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콘텐츠 위상이 높아지고, 국내 창작 뮤지컬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 창작 뮤지컬을 외국에 많이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창작 뮤지컬도 언젠가는 해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그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뮤지컬이 진입장벽이 높은 문화였는데, 요즘은 SNS, 유튜브 등으로 젊은 관객들이 유입들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서 1년 사이에 젊은 관객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종이 잡지 파급력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서브 채널로 영상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Q8. 더뮤지컬이 앞으로는 독자에게 어떤 매거진으로 남겨지길 원하세요?

전문지이다 보니 뮤지컬을 처음보는 사람들이 사서 보는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재발행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읽을거리가 많은, 뮤지컬을 즐겨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잡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스24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처음에 인수되면서 매체의 독립적 성격이 훼손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집권을 유지시켜줬고, 이전보다 제작비의 범위가 커져서 외국 칼럼니스트 기고도 받고, 콘텐츠 면으로 더욱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Q9.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뽑아주세요!**

하나만 꼽기 어려운데, 초기에 좋아했던 작품이 뮤지컬 '렌트'였습니다. 당시에 뉴욕의 오리지널팀이 내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배우, 제작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값진 경험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Q10. 근무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잡지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많은 변동이 생기곤 합니다. 예정됐던 취재 인터뷰가 마감 10일 전에 핑크가 나면, 대체 기사를 갑작스럽게 채워야 하기도 하고, 결정권자이다 보니 팀원

들의 많은 보고와 질의, 사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 등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힘들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받고 하는 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11.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뮤지컬 영화로 처음 접했던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2015년 헤드윅이 브로드웨이로 오랜만에 올라가게 되어서, 원작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해 직접 뉴욕으로 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뷰만 성사시키고, 뉴욕 통신원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정말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Q12. 마지막으로 회사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스24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나를 기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방향이 문화콘텐츠 기업을 표방하잖아요. 보여지

는 게 많은 사업이다 보니, 사회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더뮤지컬 19년 창간월에 그동안의 표지에 대한 독자 투표를 받아 인기있는 표지로 기념 엽서를 제작해 판매했고, 수익금을 소외계층 아동에게 기부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뮤지컬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독일 베를린의 유명한 극장 '사유뷰네'의 '토마스 오스터 마이어' 예술 감독을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그 극장은 홀리스, 소외계층에게 티켓을 1만 원에 제일 좋

은 자리부터 원하는 어떤 좌석이든 제공한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서비스라 충격적이었는데, 감독은 당시에 인터뷰에서 "극장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일화입니다. 국내에서도 소외계층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이러한 활동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티켓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The-Musical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춘천시청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단말기 '닷 미니' 기부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지난해 11월 29일 춘천시청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단말기 기부 전달식 진행  
- 한세예스24문화재단과 예스24,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개선 위해 점자단말기 지원 시작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사장 조영수)이 지난해 11월 29일 춘천시청에 2,000만 원 상당의 시각장애인용 점자 단말기인 '닷 미니(Dot Mini)'를 기부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예스24와 함께 지난해 12월 종료구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닷 미니'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춘천시립도서관과 강원점자도서관, 강원 명진학교 등에서 춘천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책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닷 미니'는 점자와 음성을 통해 예스24의 전자책이 연동되는 점자단말기로, 기존 점자도서관으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신간 및 베스트셀러 등 약 7,000여 종의 전자책

을 볼 수 있게 지원한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독서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예스24와 함께 '닷 미니' 기부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닷 미니'를 통해 다양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닷 미니' 기부 사업 외에도 대학생 해외 봉사단, 국제 문화 교류전, 유학생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청(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진호 예스24 ebook B2B팀 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세예스24문화재단



## 한세실업, 제35회 '섬유의 날' 기념식서 임직원 2명 유공자 수상

- 한세실업 곽은경 부장과 박성열 이사, 수출 부문서 각각 산업부 장관상·섬산련 회장상 수상  
- 곽은경 부장 "의류섬유업계 종사자 대표해 의미 있는 상·앞으로도 글로벌 패션시장 선도해 갈 것"



한세실업 대표이사 김익환, 조희선

글로벌 의류수출전문기업 한세실업(대표 김익환, 조희선)이 지난 11일 섬유센터에서 진행된 제35회 '섬유의 날' 기념 행사에서 임직원 2명이 섬유·패션 산업 공로자로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한세실업 곽은경 부장과 박성열 이사다. 곽은경 부장은 수출품목에 마스크, 방호복 등의 카테고리를 확장해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최고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 수출 부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성열 이사는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생산 활동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생산시설 증설 등 섬유 수출 확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 부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섬유의 날' 행사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매년 11월 11일 '섬유의 날'에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부장관, 이상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섬유패션단체장 및 수상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됐으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곽은경 부장은 "전국 의류섬유업계 종사자들을 대표해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한세실업이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의류 수출 기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의류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열 이사는 "가파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세실업이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기술력과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 및 수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패션 기업이다. 미국, 베트남, 인도



곽은경 한세실업 부장 사진제공: 한세실업

네시아, 니카라과, 아이티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20개 법인 및 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전세계 5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 한세에스24홀딩스, 꽃자왈공유화재단에 꽃자왈 보전 기금 1천만 원 기탁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회장 김동녕)는 지난해 11월 10일 꽃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에 꽃자왈 공유화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한세에스24홀딩스는 패션과 문화, 교육 사업 부분을 선도하는 한세실업·한세엠케이·한세드림·에스24·동아출판 등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그룹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삼고, 친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경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회사 한세실업은 친환경 기술 투자, 사회공헌 캠페인, 사내문화 및 거버넌스 개선 등 ES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꽃자왈 자원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꽃자왈공유화재단의 활동에 감동을 받고 기금에 참여하게 됐다"며 "한세에스24홀딩스는 이와 같은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훈 꽃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은 "해당 기탁금은 꽃자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아름다운 활동이 이어짐으로 인해 꽃자왈 생태계가 계속 보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꽃자왈  
사진제공: 꽃자왈공유화재단



## 한세실업, 'SWDW 2021' 4년 연속 후원... 김익환 부회장 모더레이터로 나서

- 한세에스24문화재단, 지난해 11월 29일 춘천시청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단말기 기부 전달식 진행  
- 한세에스24문화재단과 에스24,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개선 위해 점자단말기 지원 시작



SWDW 2021에 참석한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오른쪽)이 이문주 쿠팡 대표(왼쪽), 정준영 엔코드 대표(가운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한세실업



한세실업 대표이사 김익환, 조희선

한세실업(대표이사 김익환, 조희선) 김익환 부회장이 지난 8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서울 워크 디자인 위크 2021(SEOUL WORK DESIGN WEEK 2021, 이하 SWDW 2021)'에 참석해 팬데믹 시대의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SWDW 2021'은 다양한 분야의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모여 '미래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다. 한세실업은 SWDW 초회부터 공식 후원사로 나서고 있으며, 매년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이 직접 모더레이터(moderator)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SWDW 2021은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일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을 이끈 김익환 부회장은 '글로벌, 온라인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이문주 쿠팡 대표, 정준영 엔코드 대표와 함께 '위드코로나(With COVID-19)' 시대에 기업이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언택트가 일상이 된 현 시대에 온라인에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해 호평을 얻기도 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SWDW 2021 행사를 통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가들과 미래의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이나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세실업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패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 및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이다.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아이티 등 전세계 8개국에서 20개 법인 및 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전세계 5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세드림 컬리수,  
'빨간내복야코' 협업 제품 출시

<https://youtu.be/DbE210dXIV8>



보도자료 <https://www.fnnews.com/news/20220120082746952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pXyHQRltvTgYEclYe3ue8w>

CURLYSUE X YACO

"야코 캐릭터와 컬리수의 만남!"  
컬리수에서 귀여운 야코 그래픽이 돋보이는 콜라보 아이템을 선보이며, 아이들을 위한 신학기 캐주얼 코디를 제안했어요!  
사은품으로 야코 메모지와 네임스티커를 증정하며,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



리바이스키즈, 스타일, 실용성 갖춘  
'데일리 등교룩' 제안

<https://www.instagram.com/p/CY2iRauPkGO/>



보도자료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7808/?sc=Naver>  
인스타 @levisk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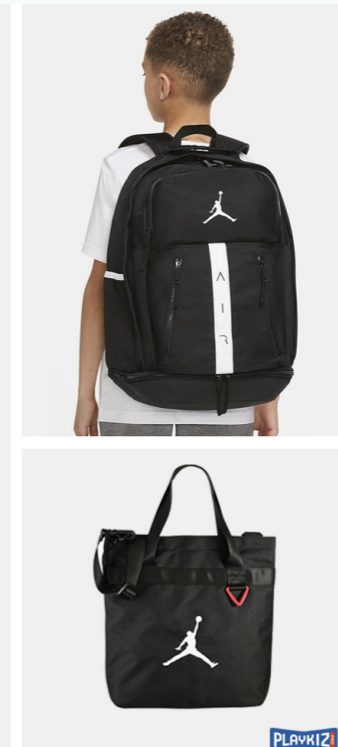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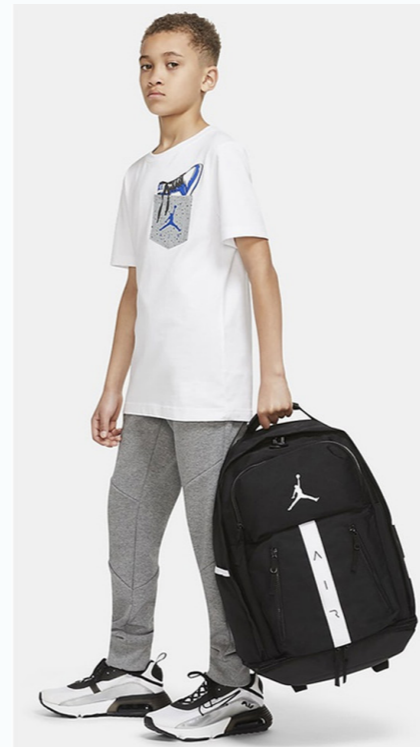
리유저블컵 & 22 봄 신상 아이템  
증정 프로모션!

리바이스키즈에서 친환경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리유저블컵과, 22 봄 신상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많은 분들이 리바이스키즈의 친환경 움직임을 응원하는 댓글로, 높은 참여를 보여주셨습니다.



플레이키즈프로, '22 SS 신상  
신학기 백팩& 실내화 가방 출시

<https://www.instagram.com/tv/CY-RJALvzd9/>



나이키키즈 봄 신상품 이름 맞추기!

플레이키즈-프로에서 나이키키즈 봄 아이템 이름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였어요. 다양한 나이키키즈 봄 신상 중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제품 이름을 맞추는 이벤트였습니다. 나이키키즈의 2022 봄 신상답게 높은 참여도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초등 고학년 신학기 가방 탐구생활



한세드림 모이몰른, 2022 SS  
시즌 콘셉트 '해피니스 인 네이처' 공개



보도자료 <https://www.insight.co.kr/news/375995>

# LIFE AT GLOBAL HANSAE

한세실업 VN법인 MAIN OFFICE 라이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년간 VN MAIN OFFICE에서 회계로 근무하셨던 전병민 선임님을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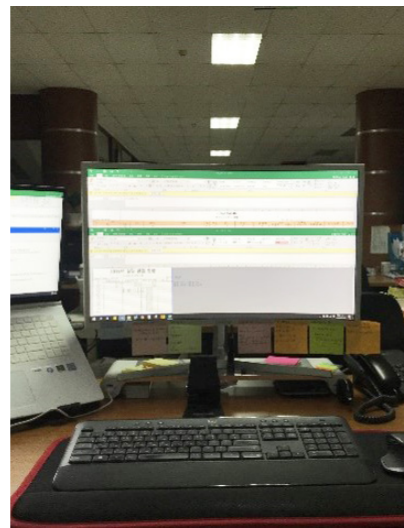
## VN법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위 '큰집'이라 불리는 VN법인은 2001년 설립되어, 한세실업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본공장입니다. 호치민 중심지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구찌(Cu Chi) 현의 지역 경제를 책임진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현지인 약 7천 명과 활발히 한세실업의 생산과 매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베트남 제1법인입니다.



## 선임님이 맡았던 업무는?

저는 법인 메인오피스 소속으로 회계를 담당하였습니다. 법인 회계의 주된 업무는 법인의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관리회계적인 측면으로는 법인의 모든 비용을 '월정' 자료로 작성하여 본공장과 상주영업부등의 정산이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로는, 결산서와 결산부속 자료를 제작하여 세무서, 국세청, 회계법인 등의 기관과 감사 자료 대응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더불어, 상기 두 업무를 집합하여 법인 및 본사 경영진 분들에게 회계 관련 데이터를 가공 및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기초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인턴 끝나고 바로 파견 나갔는데 장/단점은?

해외 파견을 가게 되면 이른 직급 대비 높은 직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팀원으로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폭 넓은 업무 범위와 시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을 다녀오면 한세실업의 전반적인 생산과 관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크지만, 다양한 부서의 선배님들과 같이 업무를 하며 배움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빠르게 회사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한 번 더 파견을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 법인은? 이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금 VN법인에서 같은 직무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어설펠던 과거 업무능력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조금 더 유관부서에겐 원활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그렇습니다.



## 법인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VN법인은 비교적 도심과 가까워 이따금 시티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 친구들이 방문하여 제가 현지인 가이드 마냥 안내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또한, 아침에 나와 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VN법인의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며 사무실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일했던 것도, 또 법인분들과 퇴근 후 힘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함께 마시던 맥주 한 잔도 지금 생각하면 다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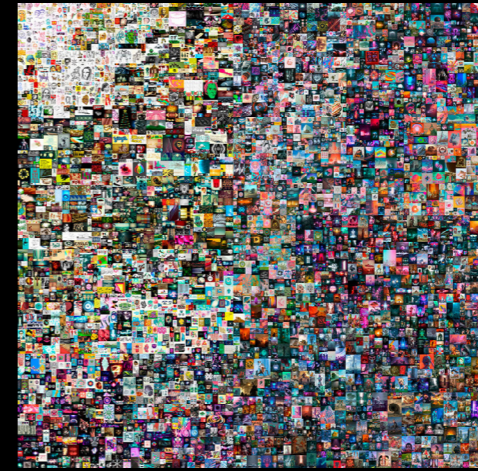
## 2022년 NFT 아트 미래는?



# NFT art

작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NFT. 풀어보면 '대체불가(Non-Fungible)'와 '토큰(Token)'의 조합으로, 고유성을 지닌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다. 코인처럼 가상화폐가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대체 가능 토큰이라면, 누구나 쉽게 무한복제가 가능했던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이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본이 '대체불가 토큰'이다.

2021년 3월, 피카프로젝트에서 '마리킴(Mari Kim)'의 NFT 작품 《Missing and found》가 2880이더리움(ETH, 한화 약 6억 원)에 낙찰됐다.  
\*사진제공: 피카프로젝트



2021년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NFT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6930만 달러(한화 약 830억 원)에 낙찰됐다.  
\*사진제공: 피카프로젝트

NFT의 핵심 잠재력인 희소성의 가치, 유일성에 아티스트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NFT와 아트의 만남이 이뤄낸 변화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디지털 작품을 위한 판로가 생겼다는 것이다. NFT를 통해 디지털 원본에 대한 인증과 소유에 대한 증거가 가능해진다 보니, 디지털 아트 작품 거래의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실물로 존재하는 미술 작품도 NFT 아트가 될 수 있다. 물감과 붓, 캔버스 등의 물리적 재료를 사용해 완성한 실물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 파일을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면 NFT로 민팅하면 된다. 이로써 아날로그 세상의 작품이 블록체인상에 토큰화된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창작자는 NFT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물 작품까지 페어링해 판매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처음부터 페어링은 하지 않되, NFT 구매자가 추후에 실물 작품을 원할 경우 NFT와 실물 작품을 맞바꿔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마치 실물 자산에 대한 상품권처럼, 참 신기한 발상의 시작, 'NFT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미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에 NFT 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사업을 선보였다. 세상은 이제 NFT의 새로움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NFT를 통해 미술 작품이 어떻게 새롭게 관객을 만나고 평가받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불과 몇 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NFT 아트 시장과 우리가 함께 성숙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NFT 아트의 '예술의 본질'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예술 평론가들은 대다수의 NFT 디지털 작품이 어디선가 퍼 온 이미지를 토큰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것을 예술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고 묻는

다. 또, 실물 작품의 NFT 전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실물 작품이 주는 아우라가 제거된 상태에서 진본성, 희소성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NFT와 예술의 만남에서 좀 더 본질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술을 그 자체로서 감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NFT를 앞세운 투기와 욕망만이 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미술 작품은 감상하고 이해하는 소비재인 동시에 자본이득이 가능한 훌륭한 투자재이기도 하다. 결국 컬렉터들은 미술 작품을 소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심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수익물에 매료된 그리고 이러한 컬렉터의 유입은 미술 시장의 성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원본 인증과 소유권 증명을 필두로 하는 NFT 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거래에 있어 전례 없는 투명성과 혁신의 기회를 가져와 자본이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NFT와 실물 작품이 페어링 되어 거래될 경우엔 실물과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원본 및 소유권 인증까지 더해지게 된다. 또한 무수히 많은 군중을 타깃으로 하는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실물 작품에 대한 담론을 증폭시키고, 미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 최고운 큐레이터 chlrhdns11@naver.com  
필자 최고운은 권진규미술관(춘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진주) 등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정체성 재조명을 주제로 전시기획하며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했고, 박여숙화랑, (재)한원미술관, 종이나라박물관, 학교재에서 재직했다. 현재 문화예술



## 2022년, 대중의 새 마음에 불을 지필 방법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새 것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 새로운 목표 등... 새해만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가 또 있을까 싶네요. 소비자의 심리가 이렇게 새 것으로 가득 차오를 때가 광고 커뮤니케이션에는 좋은 기회입니다. 필자도 얼마 전에 신년이라는 기회를 살려 금연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라며 새해의 금연 결심을 실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연만큼 새해와 잘 어울리는 마음 속 새 것도 없으니까요. (새해, 모두의 노담을 응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새해라는 다시 없는 계기를 통해 기업과 브랜드들은 소비자 마음 속의 새 것들을 자극합니다. 건강, 영어, 진학, 취업 등 새해만 되면 마음을 간질거리는 것들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자극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배우 김정은이 출연했던 BC카드의 '부자 되세요' 광고가 아닐까 합니다. 이 광고는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그 파급력이 매우 컸

습니다. 이후에 BC카드는 '부자 되세요'에 이어 '행복하세요', '올해에는 꼭 드세요', '아빠 힘내세요' 등 서민들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소위 '덕담 광고' 시리즈를 연이어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치열한 신용카드 브랜드 경쟁에서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영상 기법, 귀를 사로잡는 유명한 BGM, 반전의 드라마도 없는... 어쩌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왜 이 광고는 빅히트를 쳤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광고가 TV에 등장했던 2001년 말, 당시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힘든 시기를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새해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이때만큼은 소비자 마음도 꽤 달랠 것이라 예상이 되죠? 모두가 처음 겪었던 외환위기는 초유의 사태와 그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안도, 자긍, 희망 같은 기류들이 넘실대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광고가 크게 인기를 끈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희망을 이야기한 광고는 BC카드 광고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겠네요. 사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던 것이 유교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정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 덕담에는 복, 건강, 행복 등의 가치들이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 되라'는 대놓고 돈 얘기하는 덕담이, 그것도 TV를 통해서 들려온 것입니다. 파격적이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말에 대중은 호응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한 겁니다. 외환위기는 새로운 환경과 그 극복은 고도 성장만을 경험하면서 돈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도 잘 살고 성공도 꿈꿀 수 있었던 시대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돈의 논리 앞에선 우방국도 가족도, 냉정할 수 밖에 없음을 느꼈고 지금의 시대가 세계적인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온 몸으로 느꼈던, 잊을 수 없는 첫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를 겪고 있는 대중의 마음속에 자신도 느끼지 못했던 '부에 대한 열망과 공포'를 자극한 카피가 '부자 되세요'인 것입니다. 시대 정서를 콕 찌른 거죠.

2022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세상을 경험 중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언젠간 오겠지'라고 예상했던 가까운 미래의 것들이 갑자기 현재 시점으로 당겨졌습니다.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이 나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빠르게 대처하는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또다른 첫 경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대중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열망이 차오르고 있을까요?

2022년 대중의 마음 속 열망을 알아차린다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또다른 성공 케이스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2001년 겨울, 빨간 옷을 입은 그녀가 외친 한마디가 그러했듯이..

출처 : TVCF.co.kr, 광고 캡처



“1980년대 클래식 감성의 귀환!”

## NBA, 80년대 오리지널 농구화 재해석한 ‘NBA스타디움’ 출시 슈즈 라인 확대 본격화

- NBA, 브랜드 정체성 담은 농구화 ‘NBA스타디움’ 정식 런칭. 슈즈 라인 강화 계획
- 농구화 특유의 오리지널리티 살리고, NBA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클래식함과 트렌디함 강조
- 높은 탄성과 밀착력, 리플렉티브 소재 등 기능성과 디자인 갖춰 ‘NBA 시그니처’ 슈즈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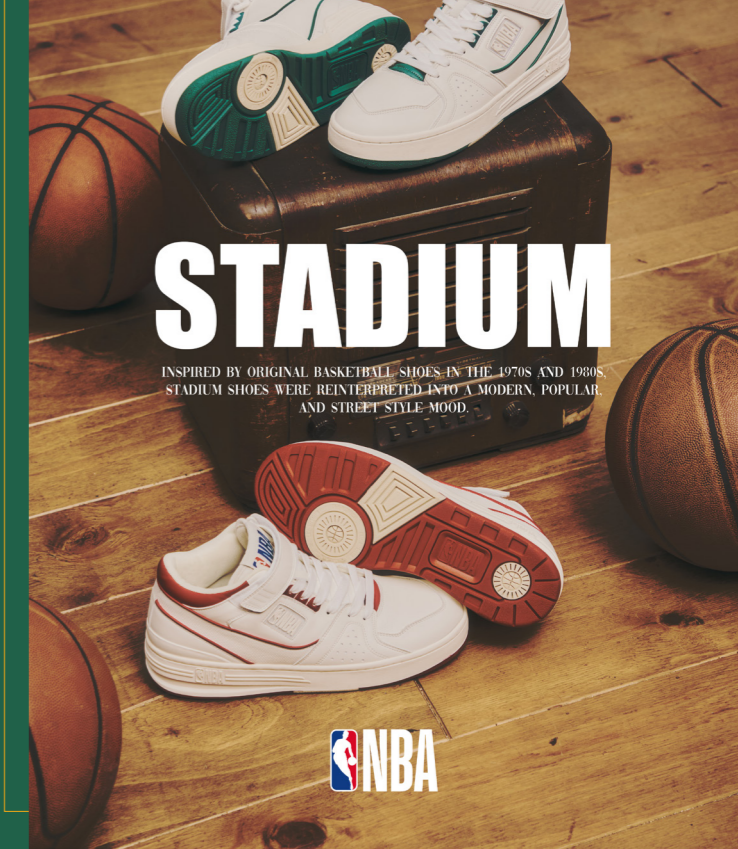
NBA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클래식 감성의 농구화를 최초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슈즈 라인 확장에 나선다.

국내 대표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는 1970~80년대 유행한 오리지널 농구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NBA스타디움’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 여름 NBA 로고맨 슬라이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슈즈 라인 강화를 예고한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기대가 쏠린다.

NBA스타디움은 브랜드 정체성인 농구를 NBA의 헤리티지 감성으로 재해석해 클래식하고 모던한 매력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명은 크고 화려한 농구 코트에서도 빛이 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을 사용했다.

NBA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농구화인 만큼 자체 기술력을 적극 활용했다. 러버와 파이론 소재의 중창을 적용해 무게감을 최소화했다. 탄성과 밀착력을 높여 유연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그림감으로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5.5cm 굽으로 자연스러운 키 높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레트로 느낌이 물씬 풍기는 디자인이 더해져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볼륨감을 배가했으며, 아웃솔에 NBA 로고를 배치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조했다. 가죽과 빛을 반사하는 리플렉티브 소재를 적용해 야간 활동 시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화이트 바탕에 레드, 그린 화이트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 심플한 패션에 ‘엣지’를 줄 수 있다.



NBA스타디움은 분더샵첨담 N관 1층에 마련한 팝업스토어에서 오늘(11일)부터 25일까지 만나 볼 수 있으며, 선착순 100족 한정으로 판매된다. 현장에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짐색, 로고택, 포스터, 엽서가 담긴 키트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NBA 마케팅 담당자는 “NBA스타디움은 많은 플레이어의 추억과 열정이 담긴 1980년대 농구화를 모티브로 삼아 NBA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재해석해 탄생한 제품이다”며 “이번 신제품을 시작으로 NBA만의 감성이 담긴 슈즈 라인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NBA는 스포티한 기본 의류부터 유니크한 액세서리까지 1020세대를 공략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201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해 해외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세엠케이는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 및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국내 대표 패션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방수 기능부터 마스크 보관 공간까지,  
기능성과 감각적 디자인으로 취향 저격!

## NBA키즈, 책가방 판매 호조.. 강남권 취향저격 신학기 '인싸템'으로 각광

- NBA키즈 백팩 세트, 디자인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 특성 고려한 기능성으로 신학기 필수 아이템 등극
- 기획전 누적 판매율 70%, 강남권 매장3차 물량 연속 완판 달성 등 뜨거운 인기몰이
- 인체공학적인 설계부터, 방수 기능, 마스크 보관 공간까지...정형화된 백팩에서 벗어난 실용성&편의성 '눈길'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의 아동복 브랜드 NBA키즈의 백팩 세트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신학기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한 디자인에 더해 다양한 기능성까지 갖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NBA키즈의 백팩 세트 기획전이 2주만에 70% 이상의 높은 누적 판매율을 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다. 아동복 패션에 관심이 많은 강남권 매장에서는 발매 직후 3차 입고분 완판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구매자 중 30대 여성 구매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는 신학기 '잇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설을 앞둔 시기인 만큼 새학기 입학 선물 수요가 높아지며 이모삼촌, 조부모들의 구매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책가방을 비롯해 보조가방, 원형 미니 파우치 등 다양한 세트 구성으로 수납 실용성을 갖췄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800g을 넘지 않는 가벼운 무게로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고, 각 제품마다 가방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바닥면을 부착해, 오염과 손상을 최소화했다. 맞춤형 수납 기능도 눈길을 끈다. 왼쪽 사이드 포켓에는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항균 안감 소재의 세이프티 포켓을 두었으며, 오른쪽에는 방수 안감을 활용해 물병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일부 상품에는 흑시

모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호신용 호루라기를 일체형으로 부착해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쓴 점도 눈에 띈다. 기능성뿐 아니라 타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 소비자들의 호응이 더욱 높다.

NBA키즈는 다가오는 신학기를 기념해 오는 6일까지 책가방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NBA키즈 공식 사이트 '스타일24'에서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교재 증정 이벤트도 병행한다.

NBA키즈 관계자는 "NBA키즈 백팩 세트는 학년별 아이들의 다양한 취향은 물론 기능성까지 겸비해 부모들의 신학기 백팩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제품"이라며, "새롭게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NBA키즈는 4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30여 개 NBA 팀의 헤리티지와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NBA만의 활동적인 스포티즘을 최대한 살리면서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의 아동 스트리트룩을 제안한다. NBA키즈는 2017년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월 국내에도 첫 단독 매장을 런칭하며 아동복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NBA키즈 책가방



NBA키즈 책가방

# Bag-Pack



NBA키즈, NBA여아 프리즘 책가방



## NBA키즈 공식 서포터즈 '느바루키' 시즌1 활동 성료

- NBA키즈 공식 서포터즈 '느바루키' 시즌1 많은 관심과 성원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통해 신제품 공개하는 등 브랜드 알리는 역할 톡톡히 수행
- 느바루키 10기 단체 화보 통해 다양한 스타일링 및 브랜드와의 친밀감 뽐내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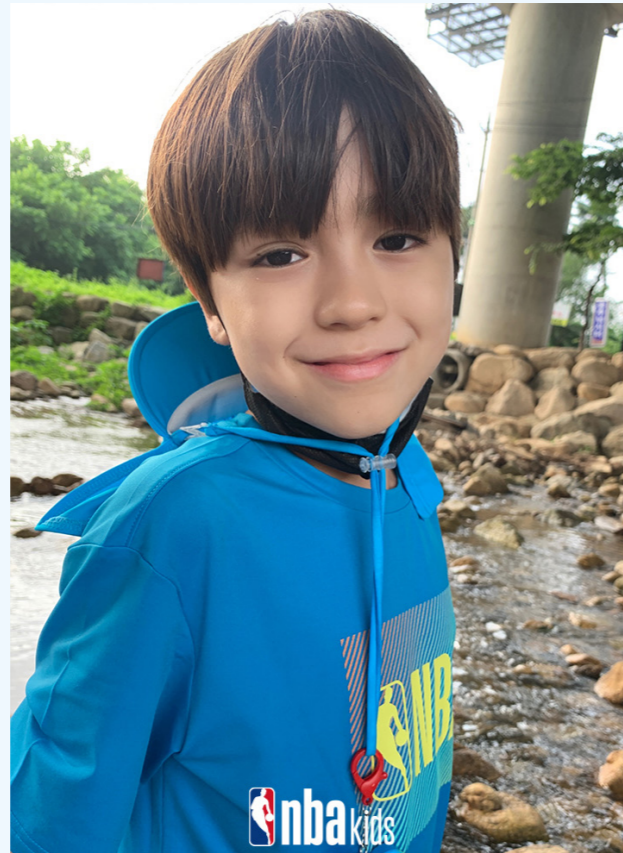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의 아동복 브랜드 NBA키즈의 서포터즈 '느바루키' 시즌1이 많은 응원과 관심 속에 공식 활동을 마쳤다.

느바루키는 친근감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달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NBA키즈의 공식 서포터즈로, 총 10기까지 모집해 운영됐다. 느바루키는 약 13개월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NBA키즈의 신상품을 공개하고 브랜드 소식을 알리는 등 자발적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느바루키 10기는 시즌1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로 구성되어 브랜드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단체 화보 촬영의 기회도 가졌다. 공개된 화보는 밝고 활기찬 모습 아래 다양한 키즈 스타일링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특히 화보 촬영 현장에 참석한 아이들은 NBA키즈 스타일링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등 지난 1년여간 쌓아온 아이들과 브랜드와의 친밀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NBA키즈 마케팅 담당자는 "느바루키 시즌1은 많은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NBA키즈의 제품과 브랜드를 더욱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NBA키즈는 4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30여 개 NBA팀의 헤리티지와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NBA만의 활동적인 스포티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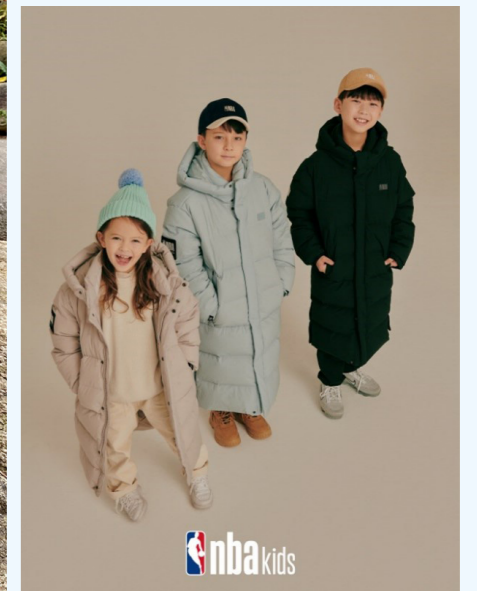
NBA키즈 공식 서포터즈 느바루키 7기

을 최대한 살리면서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의 아동 스트리트룩을 제안한다. NBA키즈는 2017년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2월 국내에도 첫 단독 매장을 런칭하며 아동복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NBA키즈 공식 서포터즈 느바루키 8기

NBA키즈 공식 서포터즈 느바루키 9기



NBA키즈 공식 서포터즈 느바루키 10기

ROOKIE

NBA



# #EBS주혜연 #영어문장공식30개 #공통문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 출간



# 문제로 중학영문법이 쉬워진다! 그래머 클라우드 3000제



## 독해

동아출판이 이투스과 EBSi 영어 영역의 대표 강사 주혜연과 함께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를 출간했다. 탄탄한 독해 실력을 다져주는 교재로 예비고~고2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교재이다.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의 가장 큰 특징은 교재별 30개의 핵심 문장공식으로 구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해석 및 구문 연습을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다룬 기출 문장으로 할 수 있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인 주혜연 강사는 이투스(www.etos.com)에서 〈공식으로 통하는 문장독해〉 기본과 완성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다.

## 영문법

지난 10월, 동아출판이 중학영문법 〈그래머 클라우드 3000제〉 신간을 출시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VEL1은 예비중~중1, LEVEL2는 중2, LEVEL3는 중3 대상이다.  
이 교재의 장점은 영문법을 작은 단위로 학습하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법 개념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를 통해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서점과 가까운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정가는 각 14,000원이다. 3000개의 문제로 중학영문법을 다지고 싶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수능까지 이어지는 국어 실력, 내신과 수능의 빠른시작, 동아출판 빠작!



### 독해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는 <문학x비문학 독해>, <고전 문학 독해>, <한자 어휘>, <첫 문법> 총 4종을 선보였다. <빠작 중학 국어 문학x비문학 독해 1~3>은 한 권으로 문학과 비문학을 교차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주제의 지문과 수능형 문제가 수록되어 '내신과 수능의 빠른시작, 빠작'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신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빠작 중학 국어 고전 문학 독해>는 중고등 교과서 및 수능 기출에서 다루지는 필수 작품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 어휘/문법

<빠작 중학 한자 어휘>는 출간 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큰 신간이다. 한자의 뜻을 통해 어휘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특징으로 "한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시험 문제를 이해 못 했어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빠작 중학 국어 첫 문법>은 기출간한 <빠작 중학 국어 문법>을 학습하기 전, 먼저 사용하면 적합한 예비중~중1 대상 교재이다. 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끊어서 서술한 것이 특징이며 100점 포인트 코너를 통해 내신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능 국어

고등 국어 빠작 시리즈는 '실전으로 가는 빠른시작'을 위해 수능 실전서 2종을 출간했다.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빠작 수능 국어 화법과 작문>은 연습과 실전의 체계적인 단계 학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빠작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500제>는 최신 7개년간 수능/모평/학평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역과 난이도별 문항 배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모두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서점과 가까운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앞으로도 동아출판은 <빠작>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날 계획이다.



## 시험에 더 강해진다! 중고등 어휘 전문서 <보카클리어> 출간



### 어휘

중등 보카클리어 시리즈는 '하루 25개씩 40일 동안 1,000개의 중학 필수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시험 포인트'와 '내신 대비 어휘 테스트'를 수록해 효과적인 어휘 학습과 내신 대비를 돕는다. 특히, 영어 단어를 풀이한 우리말에 대한 뜻도 함께 안내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카클리어 중학 기본편>은 예비 중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며 <보카클리어 중학 실력편>은 중학교 2~3학년, <보카클리어 중학 완성편>은 중학교 3학년부터 예비 고등학생에게 추천한다.

### 어휘

고등 보카클리어 시리즈는 <보카클리어 고교필수편>과 <보카클리어 수능편>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고등 1~2학년과 2~3학년이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등학생을 위한 어휘서답게 수능/모평/학평에 나온 예문을 제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했으며 내신과 수능 시험에 출제될 만한 '유의어와 반의어, 파생어, 속어' 까지 별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보카클리어 고교필수편>은 하루 40개씩 40일 동안 1,600개의 고교 필수 어휘를 학습할 수 있으며 <보카클리어 수능편>은 하루 40개씩 50일 동안 수능 필수 어휘 2,000개를 학습할 수 있다.

<보카클리어> 시리즈는 모바일 어휘 학습 '암기고래' 앱을 통해 단어 발음을 확인하거나 단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학습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5책 모두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서점과 가까운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 탄탄한 개념에 코칭을 더했다! 중학 수학 개념 기본서 〈빨리 이해하는 수학〉 1~3학년 1·2학기 개정판 출간



## 수학

동아출판에서 중학 수학 개념 기본서 〈빨리 이해하는 수학〉 개정판을 출간했다.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의 학기별 교재로, 중학 수학의 탄탄한 개념을 다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교재이다. 또한 '개념별 코칭 동영상 (QR코드)'를 모든 단원 별로 수록하여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구성한 점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빨리 이해하는 수학〉은 '기초 ▶ 개념 ▶ 집중' 세 가지 방식의 학습법으로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서 대표 문제와 필수 유형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학교 수학 내신을 대비하도록 서술형 문제도 수록했다. 예스24를 포함한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정가는 15,000원이다.

# 초등부터 키우는 국어 실력 〈빠작 초등 국어〉



## 독해

동아출판이 초등 국어 독해 문제집 〈빠작 초등 국어〉를 출간했다. 〈빠작 초등 국어〉는 중등 베스트셀러 빠작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독해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비문학 독해 1~6단계, 문학 독해 1~6단계, 총 12종 출간되었다. 〈빠작 초등 국어〉는 초등부터 비문학, 문학 영역별로 독해 훈련이 가능하도록 학년별 필수 주제와 작품을 엄선하여 수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문 독해부터 지문 분석, 어휘 학습까지 3단계의 체계적인 독해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그리고 지문별 5개의 필수 어휘 응용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지식까지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교재 내 전 지문의 '지문 분석' 동영상 강의를 수록하여 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지 학생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빠작 초등 국어〉 2권 이상 구매 시 시 글귀가 담긴 노트 굿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교육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는 교육문화 1등 기업

**동아출판**  
www.bookdonga.com

## 빠작 중학 국어 시리즈 신간 출시 기념 소문 내기 이벤트 진행



공감 135    조회수 973    댓글 122개

동아출판이 빠작 중학 국어 시리즈 신간 출시를 기념하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문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중학 신간으로 <문학 x 비문학1~3>, <고전 문학 독해>, <한자 어휘>, <첫 문법>이 출시되었으며, 해당 이벤트를 통해 신간 출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학부모를 위한 [초등 학습정보]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만 쏙쏙 알아보기'



동아출판은 월 2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초등 학습정보]를 발행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적용되는 시점, 초·중·고별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해당 콘텐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다가올 전망이다.

참고 URL  
[https://blog.naver.com/lovmom\\_kr/222667133071](https://blog.naver.com/lovmom_kr/222667133071)

## 유아인, 문소리, 최민식... 안주하지 않는 호랑이띠 배우들

유아인부터 들여다보자.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2022년 신년호 등에서 밝혔듯, 필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6부작 웹드라마 《지옥》(감독 연상호)에서 그의 연기를 지켜본 이후 대환란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연기를 설명할 언어를 마땅히 찾을 수 없어서였다.” 결코 빈말이 아니다. 영화 보기 50여 년에 영화 스타디 40년, 영화 글쓰기 삼십 수년에 처음 겪는 당혹스러운 영화체험이다. 《쿨투라》 원고 제목을 “압도적인 너무나도 압도적인!”이라고 내세웠는데, 다분히 진부는 해도 그 이상의 카피를 고집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었다. “고백컨대 어느 특정 배우의 연기를 향해 이런 경우는 최초다. 그만큼 그는 다른 차원, 다른 경지의 연기를 구사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지옥》에서의 유아인을 말하고 쓸 언어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장담할 순 없지만... 돌이켜보면 《완득이》(이한, 2011)에서 《베테랑》(류승완, 2014), 《버닝》(이창동, 2018), 《소리도 없이》(홍의정, 2019)에 이르는 일련의 출연작들에서 ‘개념 배우’ 유아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발군의 열연을 선보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물 해석 내지 성격화(Characterization)의 넓이와 깊이에서, 비교의 예를 찾기 쉽지 않다. 여배우에선 전도연 김혜수, 남배우에선 송강호 이병헌 정도랄까. 두 호랑이 선배들, 최민식과 문소리도 그 목록에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완득이》 이한 역, 2011 / 유아인



《올드 보이》 대수 역, 2003 / 최민식



《세자매》 미연 역, 2021 / 문소리



한국영화 (제작) 100주년이었던 2019년, 10차례에 걸친 상기 《쿨투라》 연재 중 “나운규에서 이병헌까지...한국 영화 남자 배우 10인”을 선정하며 최민식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수준을 논하지 말자. 캐릭터 및 영화의 다채성, 해외 영화제에서 거둔 성취 등에서 최민식이 송강호를 앞선다”고. 강제규의 《쉬리》(1999)부터 송해성의 《파이란》(2001), 임권택의 《취화선》(2002), 박찬욱의 《올드 보이》(2003), 류장하의 《꽃피는 봄이 오면》(2004), 류승완의 《주먹이 운다》(2005), 김지운의 《악마를 보았다》(2010), 윤종빈의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2011)를 거쳐 김한민의 《명량》(2014)에 이르기까지, 최민식의 행보는 단연컨대 눈부셨다. 《대호》(박훈정, 2015), 《특별시민》(박인제, 2016), 《침묵》(정지우, 2017), 《천문: 하늘에 묻는다》(허진호, 2018) 등 근작들에서 화제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대적 부진을 보였으나, 그는 “연기 스펙트럼, 캐릭터의 변신-임팩트 등에서 당대의 모든 배우들을 압도한다.” 그가 한국 영화 역사의 대표적 남성 아이콘 ‘신영균(1928~)의 최적자라는 필자의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2021년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보인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에서 그는, 시간이 없는 탈옥수 203으로 분해 예의 ‘최민식다움’을 만끽시켜준다. 신작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박동훈)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갈망해 탈북한 천재 수학자이건만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숨긴 채 상위 1%의 영재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이학성으로 분해, 특유의 멋진(Cool) 변신을 꾀한다.

문소리는 어떤가. 《세자매》(이승완)의 완벽한 척하는 가식덩어리 둘째 미연 역으로 지난해 제4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과 42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그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한 한국 배우 역사의 귀한 여걸. 데뷔작 《박하사탕》(이창동, 1999)에서 《세자매》까지 60편에 달하는 필모그래피부터가 그녀만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시사하는 바, 유아인이나 최민식 못지않다. 당장 《오아시스》(이창동, 2002)의 장애인 한공주와, 《바람난 가족》(임상수, 2003)의 바람녀 은호정 등을 떠올려보라. 문소리 그녀는 배우와 나란히 《세자매》에서는 공동프로듀서로, 《여배우는 오늘도》(2017) 등에서는 각본에 감독으로까지 활약했다. 그 또한 그녀의 존재적 스펙트럼을 증거하는 사례로 손색없다.

유아인과 문소리, 최민식 이 세 호랑이 배우들이 언젠가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미나리》)과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오징어 게임》) 수상이라는 역사적 쾌거로 뒤늦은 화양연화를 누리고 있는 윤여정과 오영수 두 선배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기대한다면 과욕일까?



# 책 읽

## 이라는 단어에 꼭 어울리는 책

1

### 「창밖을 본다」

신해욱 저 | 문학과지성사



캘리가 추천하는 책

이 책은 산문인데요. 아주 소설적이기도 하고요. 시인의 산문이 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적 감각도 풍성한 책이에요. 이야기는 친구 재욱으로부터 한 권의 공책을 선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공책은 표지와 내지 모두 깨끗한 백색에, 고급 종이를 쓴 두툼한 공책인데요. 친구 재욱은 자신이 운영하던 출판사 폐업 기념으로 공책을 백 권 만들었다면서 시인에게 이 공책을 주는 거예요. 시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좋은 걸 적고 싶다. 허튼 메모나 그저 그런 얘기 말고 좋은 것을 여기에 적어야지라고요. 그런데 좀처럼 어떤 문장도 못 적는 거예요. 나날이 시간은 가고요.

이 에세이는 시인이 깨끗한 백색의 종이에 마치 깨끗한 백색의 글자가 적혀 있거라도 하다는 듯 그 공책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무슨 말이나 하면, 공책의 빈 공백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공책과 함께 지금 놓인 이곳을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응시하는 글이에요. 매일 보는 북쪽 창도, 가끔 타는 기차의 창밖을 보면서도 처음 보는 것처럼, 종종 가는 도서관에서도 어떤 장면을 처음인 것처럼 낯설게 바라보거든요. 그처럼 낯설게 바라보는 글들을 읽는데 분명히 일상인데도 되게 비일상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무척 놀라웠어요. 이 책이 저한테는 그냥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됐어요.

나는 다른 하루 속에 있다. 감은 눈 속으로 잠은 오지 않고 잠 없이는 하루와 하루 사이에 금이 그어지지 않는다. 달력의 날짜가 바뀌고 밤이 물러가도 하루는 끝나지 않고 하루는 시작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루와 하루를 가르는 것은 창문이다. 창밖엔 오늘이 시작되고 나는 어제를 이어가고 있다. 나의 오늘은 계속되는데 창밖엔 내일이 흐르고 있다.

잘 읽히는, 명확하고 설명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도 너무 좋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머물게 하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생 각하게 하면서 나의 속도를 잡아채는 책도 무척 즐거운 것 같아요. 에세이의 범위는 이렇게 무한하고 넓구나, 이런 생각도 새삼 하고요. 더욱이 이런 책은 내가 쓰는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운처럼 느껴지거든요.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100% 만족하 시면서 읽을 책이라고 확신해요.

2

### 「나의 바람」

톤 텔레헨 저 | 잉그리드 고든 그림 | 정철우 역 | 뽀뽀북스



불현듯(오은)이 추천하는 책

표지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서점에 갔다가 표지만 보고 산 책이에요. 미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찡그리거나 화가 난 것도 아닌, 무표정에 가까운 이런 표정이 어떻게 표지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은 또 『나의 바람』이잖아요. 바람이라는 건 뭔가 희망찬 것, 어떤 것을 원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그렇다면 뭔가 바라는 표정이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표지의 얼굴은 뭔가를 바라는 느낌이 안 드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더 눈길이 갔어요.

이 그림은 초상화고요. 책에는 잉그리드 고든 작가님이 그린 초상화 33점이 담겨 있어요. 보통 그림책은 서사가 있고, 이어지잖아요. 이 책은 다릅니다. 초상화 하나당 글이 하나 붙어 있고요. 글을 쓴 톤 텔레헨 작가는 글도 쓰시지만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시도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잉그리드 고든 작가님의 초상화 모음을 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 시 같은 글을 붙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림 자체가 약간 기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묘한 그림에 낯선 이야기가 더해져 이 인물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같은, 33명의 사람과 가까

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익숙한 것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새로운 것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망설이게 돼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안감보다 설렘이 컸다면 지금은 불안감이 더 커진 시기예요. 그래서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을 처음 맞닥뜨린 사람의 불안으로 느낀 것 같기도 해요. 『나의 바람』을 읽으면 33명의 처음 가진 불안함이나 처음 갖게 된 꿈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행복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부터 시작해, 외모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등 굵직굵직한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뭔가와 싸우고 싶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정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부당함은 아니에요. 모두가 부당함과 벌써 싸우고 있으니까요. 나는 아무도 싸우고 있지 않은 무언가와 싸우고 싶어요. 허영심은 어떨까요. 아니면 간지 르기 나는 간지럼이 정말 싫거든요.

3

### 「읽는 사이」

구달, 이지수 저 | 제철소



프랑스와 엄이 추천하는 책

책의 리뷰를 김흔비 작가님이 해주셨는데요.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책에 관한 책을 그리 즐겨 읽는 편이 아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책에 관한 책을 최근 1-2년 사이에 읽게 됐어요. 읽다 보니 꽤 재미도 있고요. 나는 그 책을 못 읽었지만 그 책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싶을 때 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쓰신 두 작가님은 출판사에서 동료로 만나셨고, 이후 에세이스트와 번역가가 되신 분이예요. 저는 두 작가님에 대한 호감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제가 책에 대한 책을 막 열심히 읽는 편은 아니니까 선뜻 읽게 되지 않다가요. 두 분의 프로필 문구에 딱 사로잡혔어요. 구달 작가님의 프로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원서로 읽기 위해 러시아어를 배운 적이 있는 에세이스트.”

이지수 작가님은 이렇게요.

“하루키의 책을 원서로 읽기 위해 일본어를 전공한 번역가.”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의 구성은 두 작가님이 서로 좋아하는 책을 추천해주는 방식인데요. 먼저 메모와 함께 책을 보내줘요. ‘구달의 메모’, ‘이지수의 메모’라고 해서 나는 이 책을 이런 이유로 좋아하는데 네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담고요. 그 다음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에세이 형식으로 실었어요. 무엇보다 글이 엄청나게 재미있고요. 두 작가님이 무척 닮은 느낌도 들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나의 최애 작가인데 누구와도 이 덕심을 나눌 수 없어서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뭐야. 이번 기회를 틔우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로 지수를 유인하려 해. 차마 두꺼운 소설을 추천할 수 없어서 평전으로 골랐어. 근데 이 평전을 쓴 사람이 역사학자 E.H.카... 살짝 아니 많이 쪼리네. 후루룩 넘기길 좋은 그래픽 노블 평전도 함께 넣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골라 읽고 나랑 딱 한 시간만 덕질 토크 해주라.

만약 불현듯 님이나 캘리 님이 이런 메모와 함께 저에게 책을 보내면 당연히 읽겠죠. 아무리 내 취향에 안 맞는 책도 읽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느낌이 많은데요. 네가 추천한 책 너무 좋았다고 막 찬양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친구 덕분에 내가 평소소 선택했으면 안 읽었을 책을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 기회가 너무 소중한 즐거웠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와 이야기하듯 쓴 글의 흐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두 작가님에 대한 호감도도 되게 높아졌고요. 동시에 나도 친구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약간의 메모를 담아서, 편지를 써서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MD 추천도서



김태희 MD의 추천  
[에세이]

**계절 산문**  
저자: 박준 출판사: 달

계절마다 시인의 감성과 시선을 담은 에세이.  
다가온 봄에도 공감할 만한 구절들이 가득합니다.



박형욱 MD의 추천  
[시]

**이다음 봄에 우리는**  
저자: 유희경 출판사: 아침달

겨울의 고요와 그 속에 숨은 작은 소란들을 가만  
짚어보게 하는 시. 그렇게 다시 봄으로 가는 시



명혜진 MD의 추천  
[인문]

**이시한의 열두 달 북클럽**  
저자: 이시한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김현주 MD의 추천  
[가정살림]

**김길만 파스타**  
저자: 김길만 출판사: 다산라이프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 즐기는 이탈리아의 맛!  
이탈리아 현지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김길만의 정통 파스타 레시피



신은지 MD의 추천  
[만화]

**고래별 1~6 세트**  
저자: 나유희 출판사: 중앙북스(books)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수상!  
"내가 붙어넣은 숨으로 다시 얻은 생이라면  
그 삶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김현기 MD의 추천  
[어린이]

**Who? special 김연경**  
저자: 김현수 그림: 김래현 감수: 김연경  
출판사: 다산어린이

김연경 선수 직접 감수!  
세계 여자 배구 정상에 우뚝 선 김연경의  
유일무이한 성장 드라마입니다

영화칼럼



허남웅의 영화경(景)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스포일러가 개봉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스파이더맨 2〉(2004)의 닥터 옥타비우스(알프레드 몰리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2014)의 일렉트로(제이미 폭스) 등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각각의 빌런이 등장하는 스틸컷과 예고편이 공개되면서다. 이에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한 스파이더맨들이 모두 출연할 거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톰 홀랜드까지,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함께한 사진이 유출되면서 진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는 모두 사실이였다. 멀티버스, 즉 평행우주의 차원이 열리면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대표 캐릭터들이 차례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세계로 집결한다. 발단은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019)의 빌런 미스터리오(제이슨 질렌할)가 가면 벗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의 실체를 폭로해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피터는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게 해달라는 마법을 부탁한다. 그 와중에 피터가 여자친구는 빼고, 절친은 제외하는 등 닥터 스트레인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서 이 사달이 난다.

닥터 옥타비우스, 일렉트로에 대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012)의 리자스(리스 이판)와 〈스파이더맨 3〉(2007)의 샌드맨(토마스 헤이든 처치), 그리고 〈스파이더맨〉(2002)의 그린 고블린(윌렘 데포)까지, 피터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들 빌런을 하나하나 붙잡아 가두는 데 성공한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빌런들을 그들의 차원으로 보내려 하자 피터는 반기를 든다. 돌아가면 죽을 것이 뻔한 데 자신이 책임지고 여기서 교화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빌런의 습성이 어디 같까, 그린 고블린의 주도로 이들은 피터에게서 탈출한다.

한마디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올스타전'이라고 할 만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가진 장점과 직면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품이다. 샘 레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제작사와의 협상으로 기존 프랜차이즈의 스파이더맨들과 빌런들을 한자리에 모은 건 마블 스튜디오의 대작 기획력과 제작 능력이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뛰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어벤저스 시리즈'를 통해 쌓은 '올스타' 전략의 노하우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실제로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과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이는 마블의 전략이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피터 파커가 여전히 고등학생 신분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기성세대에 진입한 전 시리즈의 피터 파커 '들은 얼굴에서부터 세월의 나이가 뚜렷하다. 그것이 찡한 울림을 주면서 대척에 섰던 빌런들과 화해에 이르는 마지막 장면은 함께하기의 가치를 터득한 어른의 지혜가 돋보여 감동으로 다가온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가장 어린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에게 성장은 중요한 테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깨달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이 <스파이더맨: 홈커밍>(2017)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거치면서 피터의 사연을 구축해 가는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는 실제로 인한 '두 번째 기회'의 가치로 구체화한다. 피터는 자신의 존재가 타로 난 것을 두고 사랑하는 MJ(젠데이아), 절친한 네드(제이콥 배럴런)와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서는 새롭게 맞이할 '두 번째 삶'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에 따른 내용이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 이은 네 번째 '홈' 시리즈의 주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두 번째 기회의 사연은 선배 피터 파커 들에게 더 유효한 인상이다. 분량 면에서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비

중이 가장 높기는 해도 관객의 관심도 면에서는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 등 전 시리즈의 캐릭터들에게 쏠렸다. 그래서 톰 홀랜드가 분한 피터 파커의 사연이 시리즈로 쌓이기보다 이벤트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슈퍼히어로 개별의 작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어벤저스: 엔드 게임>(2019) 이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략은 눈에 띄게 비슷해진 측면이 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경우처럼 솔로 무비라고 해도 어떻게든 주요한 캐릭터들을 한자리에 모아 올스타전을 방불케 하는 '룩 Look'을 만드는 것. 개별 장면으로 눈을 현혹해도 주인공의 사연보다 중량감 있는 슈퍼히어로와 빌런을 모으는 설정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멀티 버스의 문을 열어 시공의 차원을 초월해 캐릭터를 불러들인 후, 역대급의 전투를 벌인다는 식으로 전개가 단순해진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4기의 '멀티 버스' 개념은 양날의 검과 같다. 기존의 스파이더맨을 모으듯 꿈의 캐스팅을 가능하게 해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개봉 전 주요 캐릭터의 공개만으로 많은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는 관객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영화화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마블의 대표 캐릭터이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이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유효해 보이는 이번 영화에 이은 스파이더맨 네 번째 시리즈에서 마블은 어떤 전략을 취할지 궁금해진다.

**SUBSCRIBE**

**ROOM**

**PEN**

**작가의 방에 초대합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ccounts/login/?next=/p/CYSp5m7tSVd/>





## 점심 뭐 먹지? 대동맛지도 서여의도편



#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 그리디몬버거

**위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더샵아일랜드파크 101동 109호  
**전화번호** 02-782-7008  
**추천메뉴** 베이컨치즈버거 8,800 / 카라멜라이즈 버거 8,800

여의도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놀러 온 기분 내고 싶을 때 좋은 그리디몬 버거. 화려한 조명과 네온사인 이 맞아한다. 리치한 수제버거의 정석 베이컨치즈버거와 그리디몬버거의 시그니처 카라멜라이즈 버거를 추천한다. 수제 버거 치고 소스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한 편이라 육즙 가득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승부하는 곳. 탄산음료는 리필이 가능하고, 퇴근 후라면 맥주 한 잔 곁들여도 좋을 훌륭한 버-맥집이다.

### 헤비스테이크 여의도점

**위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층 103, 104호  
**전화번호** 02-3775-3309  
**추천메뉴** 비프스테이크 10,900 / 치즈스테이크 16,000

점심시간에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곳. 치킨, 비프, 치즈 스테이크 등 종류와 사이즈가 다양하다. 지금대는 불판 위 1차 초벌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기분 내기에도 좋고, 배고픈 점심시간 음식을 눈 앞에 두고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자리는 협소한 편이지만 혼밥 가능하니 프로 혼밥러들은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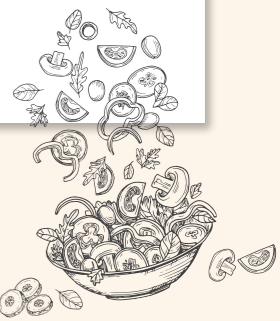
### 그릭샐러드

**위치**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지하층 10호  
**전화번호** 010-7152-6462  
**추천메뉴** 소불고기 라이스 샐러드 10,800 / 수제 단호박스프 3,900

'배는 고픈데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먹어야겠다!' 하는 날 안성맞춤인 샐러드 가게. 그릭샐러드의 추천 메뉴인 '소불고기 라이스 샐러드'에는 샐러드와 잡곡밥이 함께 나온다. 오리엔탈 소스를 넣고 밥과 함께 먹으면 소불고기 비빔밥이 따로 없다. 건강한 메뉴로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 날 좋은 그릭샐러드. 영양만점 수제 단호박스프는 따뜻하고 달콤해서 추운 날 꼭 생각나는 메뉴 중 하나이다. 여의도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샐러드와 스프, 그릭요거트까지 맛볼 수 있어 추천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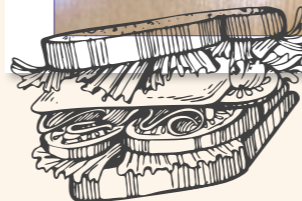
#  
인생은 관리의 연속!  
많이 먹은 다음 날



### 렐란디

**위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여의도 에클라트 지하2호  
**전화번호** 02-783-6989  
**추천메뉴** 더블 모닝샌드위치 세트 3,900 / 아보카도&베이컨샌드위치 5,500






나만 알고 싶은 샌드위치 맛집 렐란디를 소개한다. 샐러드 먹기 싫은 날 렐란디에서 신선한 채소가 가득 든 샌드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보통 샌드위치가 고기에 집중한다면 렐란디는 신선한 채소에 집중하는 곳이다. 샌드위치 종류도 다양하고, 생과일쥬스와 2SHOT이 들어가는 커피까지 판매한다. 모닝샌드위치 세트가 저렴해서 아침에 가면 제법 불비지만, 점심시간엔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숨은 맛집 전격 공개.



## 전사 조찬강연회를 소개합니다!

### 2022년 1월 전사강연회



-  **강연일** : 2022.1.13(목) 8:00~9:30
-  **강연자**: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 연구소 소장)
-  **강연 주제**: Life Trend 2022: Better Normal Life | 2022년 트렌드 이슈와 새로운 기회
-  **강연 대상**: 한세에스24홀딩스 전 계열사 임직원
-  **기타**: 유튜브 라이브 중계 (\*현장 참석: 안원빌딩 한세실업교육장 7층)








트렌드연구가로서 저서 <라이프 트렌드>를 기반으로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언컨택트' 라는 저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언컨택트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들려주셨습니다.



### 2022년 2월 전사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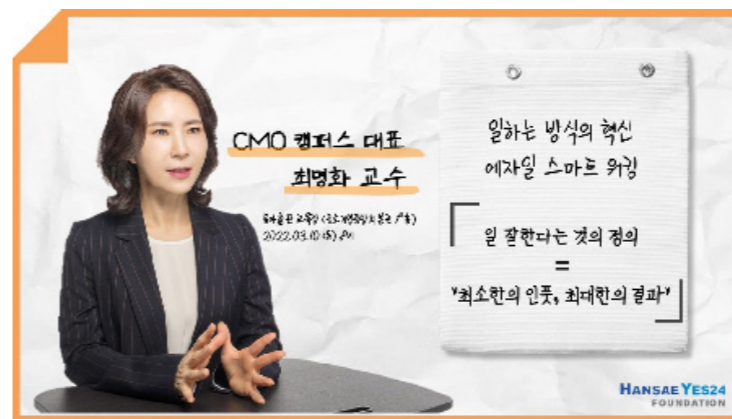







-  **강연일** : 2022.2.10(목) 8:00~9:30
-  **강연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원 교수)
-  **강연 주제**: 양정무 교수의 생각을 여는 미술
-  **강연 대상**: 한세에스24홀딩스 전 계열사 임직원
-  **기타**: 유튜브 라이브 중계 (\*현장 참석: 동아출판 교육장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9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과 교수님으로, <미술이 마술보다 재미있는 다섯 가지 이유>, <미술이 마술이 될 때> 등의 주제를 통해, 중세 미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tvN <어쩌다 어른>,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등에 출연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 2022년 3월 전사강연회



-  **강연일** : 2022.3.10(목) 8:00~9:30
-  **강연자**: 최명화 (블러섬미 대표이사)
-  **강연 주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내는 Smart Work
-  **강연 대상**: 한세에스24홀딩스 전 계열사 임직원
-  **기타**: 유튜브 라이브 중계 (\*현장 참석: 동아출판 교육장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9층)



3월 연사는 현대자동차 최초 여성 상무이자, LG전자 최연소 여성 임원을 역임한 최명화 교수입니다. <커리어 Next Step을 위한 셀프 브랜딩 전략>, <직장 생활을 위한 셀프 브랜딩> 등의 주제를 통해, 조직 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특강을 진행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 내는 Smart Working>이라는 주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관리법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조직 내 협업의 중요성, 조직 내 자기관리법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과 팁을 들려주셨습니다.